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연구원, 연구·정책 전면 혁신 전북자치도정 핵심 싱크탱크 역할 강화

기능 중심조직 개편 추진
 저연차 연구자 성장 지원
 정책 과제 70건으로 확대
 도민 제안 플랫폼 고도화

AI·데이터 기반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AI 데이터 문해 교육을 정례화한다.

특히 시군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국가예산 및 도정 과제로 연계하는 현장 리서치 TF를 운영해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정 반영률 높이는 정책 연구 체계 구축하기 위해 도정 연구 확대를 위해 정책·현안과제를 기존 48건에서 7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도 실국과의 분기별 정책협의 정례회를 통해 선제적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중간 결과 합의 의무화를 도입하고, 연구 종료 후에도 3년간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반영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시군·의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연구원이 되기 위해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정책브리프 확대 발간과 정책라운드 포럼 운영을 통해 도민 참여를 상시화한다. 또한 시군 정책간담회 운영 방식 개선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시군 지원의 내실을 다지고, 도의회의는 정책협의 회 및 공동연구를 확대해 입법·정책 연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백렬 원장은 "이번 혁신안은 연구원의 역할을 단순한 연구 수행기관을 넘어, 도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형 정책 싱크탱크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라며,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BNP파리바와 도내 인프라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BNP파리바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 미래산업, 글로벌 금융 날개 달다 | 도, BNP 파리바와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신재생에너지·디지털금융 등 5개 분야 공조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금융그룹 BNP파리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도는 28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BNP파리바와 도내 인프라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NP파리바가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택받은 지자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BNP파리바는 1848년 국립 파리은행으로 시작해, 2000년 민영화를 거쳐 민간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재편된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재정 투자자 역할을 해왔다. 국내에는 1976년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번 전북과의 협약이 국내 지자체와의 첫 공식 협력에 해당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BNP파리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협약 체결 이후 협력 방안과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북의 5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글로벌 금융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K-Culture 산업 인프라 조성 △바이오 소부장산업 △첨단 AI 모빌리티 및 퍼지컬AI산업 △디지털금융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전담한다. BNP파리바는 각 분야 추진 사업의 파이낸싱 제공과 주관을 맡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럽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그룹과의 이번 협력은 새만금 개발사업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NP파리바는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을 보유한 금융그룹으로, 인프라와 ESG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만 40여 개 이상의 태양광 프로젝트(1.6GWh)에 투자한 바 있으며, 수소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어서 전북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력의 범위는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금융 자문과 투자 연계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프로젝트의 설계·개발·시행 전 과정에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미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산업 구조 고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를 지속 확대하고 전북의 산업·인프라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내 주요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P파리바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76년 한국 법인을 설립한 이래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만호 기자

도-국립생태원, 토하 친환경 양식기술 특허 3건 출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립생태원과 함께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술 특허 3건을 공동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새뱅이 먹이생물용 녹조류 증식 및 생산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방법 △새뱅이를 활용한 부영양화 수역의 수질 개선 및 수생식물 복원방법 등 3건이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무해 녹조류를

직접 배양해 토하 사료로 활용하는 양식기술이다. 시판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아 사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토하가 녹조를 먹는 특성으로 인해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점에서 기존 양식기술과 차별화된다.

이번 공동 출원으로 전북자치도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토하 관련 특허 등록 및 출원 총 7건을 확보하게 됐다. /이만호 기자

"개혁 정신 계승 다짐"... 민주당, 故 이해찬 상임고문 합동 추모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8일 도당사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故(故) 이해찬 상임고문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관련사진 3면)

이날 추모식에는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송태규 익산시 갑 지역위원장과 도내 시·군 단체장 의회 의장단 등 당 주

"당이 추구해온 '민주·개혁·책임 정치' 가치 재확인"

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뜻을 함께 기렸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에 평생을 헌신해 온 이해찬 상임고문의 정치적 신념과 발자취를 되새겼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이번 합동 추모식은 고인의 업적을 단순히 기리는 자리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 온 '민주·개혁·책임 정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찬 상임고문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와 개혁의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고인의 정치 철학을 되새기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